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전후로 하여 기독교사에는 2개의 중간기가 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고(말4:2)로부터 그분께서 오시기까지의(막1:1) 신 구약사이에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이나 선지자의 활동도 없이 400년을 침묵으로 일관되었던 침묵기.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사이에 있는 은혜의 기간인 쥬빌리(자유와회복과기쁨)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중간기를 말한다. 우리는 두 번째 중간기, 다른 말로 마지막 때(Eschatods)를 살고 있다. 그것도 끝자락에 서 있는 것이다.

먼저의 중간기(BC404-AD4)는 바사와 헬라의 지배하에서 이스라엘은 고초를 겪었으며(BC404-167), BC166-63 사이에 마카비 혁명으로 독립하여 성전 탈환(수전절)과 하스몬 왕조를 이루었으나 헬라화라는 타락과 왕조안의 분쟁으로 또 다른 로마제국의 지배를 받게 되었고(BC63-AD4), 이두매 출신 헤롯의 왕가(마2:11)가 나타난 침울한 시대였다. 이 중간기에서는 두가지의 큰 사건이 있었다. 헬라어로 번역된 70인역 성경(구약성서,BC282, 프톨레미2세 때)의 출현과 적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 헬라 프톨레미 왕조의 안티오쿠스 4세의 폭정이 바로 그것이다. 특히 그의 폭정은 극에 달하여 안식일을 금하였고, 제사장들을 모독케 하였으며, 율법과 할례를 금하였고, 모든 것을 헬라화하면서 돼지고기를 강제로 먹게 하였고, 끝내는 돼지의 피로 성전을 더럽히며 제우스신을 섬기게 하였다. 이를 어길 때에는 극형에 처하였다. 이에 따라 많은 이들이 배교를 하였고, 제사장들 중에서도 타협하는 타락상도 있어 신앙을 지키는 자들이 크게 줄어들게 되었다.

그렇지만 이런 시대에도 한편으로는 신앙을 지키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 한 어머니가 어린 아이에게 할례를 주게 하였다고 하여 아기를 죽여 그녀의 목에 매달아 온 동네를 다니게 한 후 죽임을 당하게 한 일, 돼지고기를 먹지 않았다고 해서 머리가죽을 벗겨 7형제와 어머니가 죽임을 당한 일등 끝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믿음으로 승리한 많은 이야기가 있었던 시대이었다.

이런 면에서 오늘의 중간기 Jubilee시대에도 모양은 다르나 과거와 유사한 환란들이 있어왔고 앞으로 있을 전무후무한 환란기와 적그리스도의 출현에 따르는 신앙의 역경은 말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 오늘의 현실의 상황이 우리에게 “당신들은 그들처럼 변절치 않고 신앙을 지킬 수 있는가?”를 묻고 있다면 어떤 답이 나올지 사뭇 궁금해진다. 이 답이 천국에 갈 수 있는 Key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만민들에게 천국의 복음을 주셨기에 이를 믿고 따르기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는 은혜의 때이기도 하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Jubilee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Jubilee는 원래 희년을 뜻한다.

Jubilee의 본질(레25:23)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므로 이 세상은 나그네로 사는 임시 거주지로 청지기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말한다. 이 세상의 소유를 버리라는 것이라고 하겠다. 구약시대에서는 안식년을 7번 지낸 때 50년째 되는 해가 희년으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온갖 회복(레25:23-55)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자유가 이루어지는 해이었다(레25:10). 마치 그리스도의 초림후 이루어진 일들처럼 보여진다(눅4:18,19,사51:1,2).

원래 Jubilee(레25:10)의 본질적 의미는 Yobel(나팔)에서 나온 것으로 직역하면 나팔을 불어 선포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낸다(출19:16,사27:23,살전4:16). Jubilee는 영적, 사회적 매임으로부터 해방을 의미하는 것으로(레25:23-55) “Reset” 곧 모든 소유의 원상복귀이다. 이리 볼 때 우리는 정반대로 언제나 모든 것에 “내 것”을 찾으려 움켜쥐고 있다. 이는 욕심이고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사망에 이르게 한다(약1:13-15). 결코 천국과는 거리가 먼 일이다. 고로 나를 내려놓는 것이 우선적인 일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께로의 회복이요, 창조때로의 회복이 있어야 한다. 곧 하나님과의 동거이며, 현존하는 하나님나라에 거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Reset이다. 복음의 목적은 하나님께로의 “Reset”에 있다.

Jubilee는 주의 은혜로 회복에 의한 자유함과 하나님나라의 임재를 만끽하며, 세상의 것을 버리고 거룩한 백성답게 세상과 구별된 정결한 삶, 주님앞에 준비된 삶을 살아야 함을 말한다. 타협적인 현세적 믿음에 서서는 아니 된다. 이것은 최후의 순간, 주님앞에 섰을 때 모든 것이 허사가 되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Jubilee는 성령시대로 주께로의 회복이다. 따라서 지금의 Jubilee, 다시말해 이 마지막 때의 기간은 이 세상의 영화를 추구하는 시기가 아니라 어떠한 핍박이나 죽음앞에서도 신앙의 지조를 지켰던 믿음의 선조들처럼 끝까지 변절치 않고 믿음을 지켜 나갈 수 있도록 단련하는 기간이다. 그러므로 주님의 재림에 준비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신구약 중간기의 믿음의 사람들처럼 우리는 어떠한 역경속에서도 배교나 변절 없이 참 복음안에서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이다. 왜일까? 우리는 기필코 새 하늘 새 땅인 영원한 새 예루살렘성에 들어가야만 하기 때문이다.

Jubilee! 은혜의 이 때 우리는 순교의 정신으로 천국을 준비하여야 한다. 더 이상 늦기 전에. 저 천성을 바라보며 매일을 승리하며 주께로 나가야 한다.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사모하며 갈망만 했던 예수 그리스도와 천국 그리고 지금의 중간기 Jubilee이다. 단 한번밖에 없는 이 Jubilee, 이 End Time에 주의 은혜를 놓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기름을 준비 못한 다섯 처녀들의 말로와 같아서는 아니 된다. 깨어 일어나 정직한 복음, 참 복음 안으로 들어가야만 한다. 이제는 영원히 살 길만 찾아 나서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이 둘째 중간기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와 메시지인 것이다.

살롬, 여름의 불볕 더위가 아직 수그러지지 않고 여전히 뜨거운 이 땅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한 영혼이 돌아오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도 이땅에 생명을 불어 넣고 있습니다.

1. 아래 사진은 코로나 이후 오랫동안 방문하지 못했던 000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주님의 자녀로 조금씩 성장해 가고 있는 아할람과 3자녀의 밝은 모습입니다. 리고 아할람의 교통사고로 인한 후휴증 치료(한방)를 했습니다.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2. 아래사진은 GGG 가정에서 한방치료중입니다. 저마다 여기저기 질병으로 아픔을 호소합니다. 육신의 질병에서 해방됨 같이 영혼이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3.이라크 난민학교가 코로나로 휴교되었다가 6개월 만에 다시 열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아이들과 선생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시 코로나로 인해 2주간 휴교중에 있습니다. 아이들의 건강과 학교의 정상 운영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4.가정이야기
아들 000는 올해 6월 고등학교졸업과 대학진학으로 이제 10년동안 함께 했던 중동을 떠나 한국에서 홀로서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들의 비전은 영어교육학을 전공하고 아프리카와 같은 선교지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고 싶어 합니다. 은정이는 올해 고등학교 마지막 학년을 시작했습니다. 대학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이루어 가길 소망합니다. 아이들의 비전과 소망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코로나로 인해 사역지의 현장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대면예배가 불가능한 것 처럼 사람들을 만나고 접촉해서 관계중심의 사역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도제목

- 1.코로나와 모든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주세요
- 2.사역환경이 어려워도 역사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잘 이겨나가게 하소서
- 3.무슬림 영혼들이 자연재해와 질병등 인간의 무능력과 나약함을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 4.이 땅에 더 준비된 추수할 일군들을 보내 주소서

--중동 고OO 이OO선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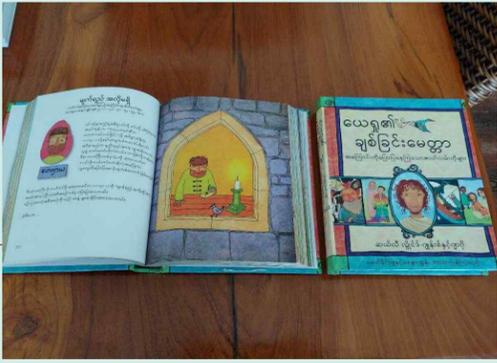


미얀마에 다시 확산되고 있는 COVID-19 사역지 상황..

□확진자 20,033명, 사망 471명, 12세 미만 어린이 확진자 230명, 지난 9월 15일 기점으로 발생한 미얀마 2차 대유행 통계입니다. 현재 상황은 동남아시아에서 검사대비 양성률이 최고 수준이며 무엇보다도 확진자 대비 사망자수가 많다는 것에 모두가 걱정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더 이상의 확산을 막기 위해 지역봉쇄가 내려진 상태이며 저희 거주지역도 의심환자 1,200명이 격리되어 검사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단키트 부족으로 일일 제한적으로 검사가 진행되고 진단결과까지 3~4일이 소요되는 가운데 한국으로부터 신속 진단 키트가 기증되어 좀 더 빠르게 검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는 반가운 뉴스가 있습니다. ‘온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은 하나님의 뜻 안입니다.’라는 워렌 위어스비의 말처럼 코로나로 혼돈이 겹치는 이 시간을 주님의 뜻을 구하며 지혜롭게 코로나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기를 기도합니다. 상점 안으로 들어올 수 없도록 입구에 쳐 놓은 끈 코로나로 단절된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성전건축 및 차세대교육 건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살후2:16~17) 주님의 뜻을 따라 기공예배를 드리고 시작된 차세대 교육건축이 일 년 이 되었습니다. 일 년의 시간동안 안전한 건축 일정이 되도록 위험요소를 막아주시고 여러 행정적인 일들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신 은혜의 시간임을 고백하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처음 건축을 진행하며 현지 건축 엔지니어와 건축에 대한 소통을 해야하고 정확한 건축 자재와 정확한 공법으로 시공하는지 등을 알아야 하기에 낯선 건축도면을 들고 건축 공부를 해야 했습니다. 건축현장에서 모든 건축일정을 이끌어 가시는 주체임을 선포하며 벽돌이 한 장 한 장 쌓아 올라갈때마다 주님께서 주신 비전을 심어가는 농부의 마음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코로나로 지역봉쇄가 되어 자재공급의 어려움과 사용해 오던 전기선을 철거하며 다시 전기사용 신청을 하라는 전기 사업소의 이해 할 수 없는 일,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기둥이 부러졌지만 하나님께서 부러진 기둥을 잡아주셔서 사고 없이 마치게 하신 일, 교육목적시설이기에 3개월마다 건축 실사를 받아야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겪으며 그때마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믿음의 훈련을 받은 것 같습니다. 건축비를 지급 할 기한이 다가오면 부족한 건축재정으로 그저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 채워주세요’라며 재정을 위해 기도했을 때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골조 공사까지 마치게 하셨습니다. 초등과정을 시작으로 중등, 고등과정의 완공까지는 가야할 길이 멀지만 교육을 통해 이 땅에 차세대 지도자를 세워나가실 소망을 바라보며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멈추지 않게 건축일정을 이끌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또한 마음을 모아 기도해주시는 동역자분들의 기도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 기도 제목
- 성전 건축 및 차세대 교육 건축에 대해서
 - 함께 기도해주셔서 골조 공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 앞으로 진행될 외벽공사와 내부 건축일정도 안전한 건축 일정이 되도록
 - 학교 설립을 위한 행정적 준비와 「행복한 학교」와 연계하여 교육 커리큘럼 개발 과정을 하나님의 지혜로 잘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 내부 건축일정과 필요한 재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수 있도록
 - 따옹지 M&G 교육센터
 - 하나님의 지혜로 코로나 상황가운데 다음 교육과정을 지혜롭게 준비하여 교육적 유익을 나누며복음의 통로로 쓰임 받는 교육센터가 되도록..
 - 성경통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차 코로나로 대유행으로 종교적 모임이 전면 금지되어 고아원 아이들을 위해 어린이용 성경책을 배포하여 성경 통독을 진행하려고 기도하며 준비가운데 고아원 아이들 성경책을 읽으며 말씀을 읽는 영적 습관과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나가는 은혜가 있도록, 성경책 구입을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비전을 품고 나가는 청년 자립공동체 「복음자리」는 불신자 청년들이 직업훈련을 받으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복음자리」 청년 공동체가 잘 세워져 가며 현재 직업교육을 진행하는 청년들이 비전을 가지고 성실하게 교육을 잘 받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컴퓨터 사무교육: 윈 미에, 퓨퓨
 - 요리교육: 응에리, 유엿산
 - 10월말로 1년 비자기간이 만료되어 새롭게 비자를 받아 외국인 거주신고를 마쳐야합니다. 코로나로 영향으로 불법체류자가 증가하고 있어 이민국에서 외국인에 대한 현장 점검이 실시될 거라는 소식이 있는데 비자 발급과 거주신고의 행정적 절차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미얀마 김정훈 김윤정선교사--

아르메니아는 지금 전쟁으로 인해 무척 어수선한 분위기입니다.

주안에서 안부를 전합니다 아르메니아는 지금 전쟁으로 인해 무척 어수선한 분위기입니다. 오랫동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이 힘들었는데..지난 주일 9월27일 아침, 아제르바이잔이 탱크를 몰고, 미사일을 쏘며 나고르노 카라바흐 지역을 침공해 들어와 나라 전체가 전시체제에 들어갔습니다.

*나고르노 카라바흐 (Nagorno Karabakh) 지역은 지도상으로는 아제르바이잔땅으로 돼있지만 실제 거주민의 90%이상이 아르메니아인들이어서 자체독립을 선언하고 아르메니안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지난 1990년 구소련이 붕괴되면서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는 이 지역을 두고 3년동안 치열한 전쟁을 벌여 약 3만5천명이 전사했습니다. 그 후 러시아의 중재로 종전을 했으나... 지난 30년동안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이 전쟁은 영토분쟁으로 보이나 ... 실제로 이는 무슬림과 크리스찬간의 치열한 영적전쟁입니다. 아제르바이잔의 배후에는 항상 터키가 있어서 ... 이번 전쟁도 터키가 무기와 군사를 아제르바이잔으로 보내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중동지역 무슬림의 종주국 역할을 하기 원하는 터키는 “눈에 가시”로 남아있는 아르메니아를 지도에서 지워 버리기 위해 오랫동안 핍박을 가해왔습니다. 1915년에는 오스만 터키가 아르메니아 대학살을 감행해 1백50만명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터키의 야망은 아르메니아를 지도에서 없애고 무슬림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확장된 터키제국 (Pan Turkic Movement)을 만드는 것입니다.
*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 터키 인구는 약 8천4백만, 아제르바이잔은 1천만... 그런데 비해 아르메니아 인구는 약 3백만 명에 불과한 조그마한 나라입니다. 군사규모, 전쟁무기등을 볼때 이 전쟁은 한 마디로 상대가 될 수 없는 전쟁인데 ... 하나님께서 아르메니아의 손을 잡아주셔서 그 동안 몇차례있었던 분쟁과 이번 전쟁에서도 아르메니아 군대가 항상 우위를 점하고 있고 사망자는 아제르바이잔군대에서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군대를 이미 다녀온 많은 사람들이 자원병으로 입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자 학생들 가운데서도 이번 전쟁이 장기전으로 양상을 보이면서 이미 3명이 군대에 자원입대했고, 이외에도 여러명이 입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분쟁지역에서 피난민들이 후방으로 몰려나오고 있습니다. 저의 교회가 있는 아르타샷지역에도 많은 노약자, 부녀자 그리고 아동들이 몰려와 현재 교회안에서 약 20여명이 피난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주에는 이들의 숫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서 피난민들을 위한 처소를 따로 마련하기 위한 준비하고 있습니다.

- 기도제목
- 1.무력충돌이 중단되고 빠른 시일내에 평화적인 해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 2.터키 에르도간 정권의 이슬람 나라의 종주국 역할을 향한 무모한 야망이 사라지고, 그 정권이 무너지도록...
 - 3.카라바흐 지역에서 몰려나오고 있는 아르메니아 피난민들에게 잘 곳과 음식, 의류등 필요한 것들이 잘 공급될 수 있도록... 특별히 피난민가운데 아이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 4.전쟁에도 불구하고 아라랏미션에서 돌보고 있는 불우아동과 장애인 가족 케어가 중단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 5.이번 전쟁을 계기로 아르메니아가 영적으로 더욱 깨어나고, 주의 나라를 위해 선교사로 헌신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 6.아르메니아 니콜 파시미안 총리를 위시한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 7.함께 무슬림 선교사역을 위해 동역하고 있는 제롬 파슬리 선교사 가정과 저의 가정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 2020년은 참으로 각별한 한해가 될 것 같습니다. 지난 3월부터 시작된 코로나 사태로 인해 모든 사역이 중단되다 시피했는데... 8월 들어서 조금씩 정상화되나 싶었는데... 이제는 전쟁으로 인해 또 다시 하루앞으로 예상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마음이 어렵고, 실망과 좌절감이 가슴을 파고 들어오려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찌하겠습니까. 모든 상황과 환경이 변화된다해도... 오직 주님의 사랑과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는 진리를 붙잡고 앞으로 전진하길 원합니다.

아르메니아를 위해서 지속적인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아르메니아 백승환, 올가 선교사--

